

##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는 개념적으로나 현실 정책적으로나 차이가 있어서 구별되는데, 한미는 1953년 이후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맹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한미관계를 인식할 때 동맹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동맹과 동반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동맹과 외교적 동반자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으로 동맹의 변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핵문제와 함께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미동맹은 최근 한국의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는 글로벌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글로벌화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체성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과 함께 동반자관계로서의 한미관계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군사적 차원으로서 한미동맹의 목적은 한반도 방어에 특정하고, 한미관계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방향에 따라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6.8.5) 발표자료

## 목 차

1.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
2. 21세기 한미동맹의 발전과 동반자관계의 형성
3.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의 전개
4.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의 정책 방향

## 1.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

- 동맹
  - 한미관계는 ‘동맹(alliance)’ 관계이며,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partnership)’로 선언되어 있음
  - 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는 개념상 차이가 있어서 둘은 구별됨
  - 동맹정치에 관해 저명한 글렌 스나이더(Glenn H. Snyder)는 동맹이 “특정한 환경에서 비회원국에 대하여 군사력을 사용(혹은 불사용)하기 위한 국가들의 공식적 제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음. “Alliances are formal associations of states for the use (or nonuse) of military force, in specified circumstances, against states outside their own membership.”<sup>1)</sup>
  - 스나이더는 또한 “동맹은 군사적 협력이 발생하는 만일의 사태를 명확히 하는 공식적 조약만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음. “Alliance can be the result only of a formal agreement of some sort that makes explicit the contingencies in which military cooperation will occur.”
  - 반면,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는 동맹을 조금 더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개념화하는데, “둘이나 더 많은 주권 국가들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안보협력관계”로 정의함. “alliance as a formal or informal relationship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wo or more sovereign states.”<sup>2)</sup>
  - 월트는 동맹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제휴(alignment)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함
- 동반자관계
  - 동반자관계의 정의에 대해서는 약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대체로 “냉전 시기 동맹을 대체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1990년대 탈냉전 이후 국가 간 관계에서 적대적이기보다는 상호 협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 유형”으로 정의됨<sup>3)</sup>
  - 동반자관계 개념은 최근 중국의 대외관계를 이해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데, 중국은 우적(友敵)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우선시했던 냉전 시대의 동맹관계를 비판하고 탈냉전 시기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반자관계를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외교관계의 형성에서 이데올로기를 전제하지 않고, 국가 간의 평등성의 원칙을 전제로 상호 적대시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sup>4)</sup>
  - 또한, 동반자관계란 “상호공동의 이익을 전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력이 아니라, 협상과 타협을 통해 협력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함

- 하지만, 동반자관계라는 용어가 중국의 대외관계에서만 사용된 것은 아니며,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한국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됨
-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초반 닉슨 행정부 시절 미국이 동맹국들인 서유럽 및 일본 등과의 협력관계를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했음
- NATO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 스스로의 정치, 군사적 변환과정에서 동반자관계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안보영역을 범지구적으로 확장하였음<sup>5)</sup>
- 한국의 경우에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체코 등과 다양한 동반자관계를 체결하였음<sup>6)</sup>

○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

- 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혹은 안보협력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한미 사이에는 1953년 이후 동맹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맹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 하지만, 한미관계를 인식할 때 동맹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동반자관계를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형태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친밀감과 유대감을 의미하는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한 것임
- 하지만, 한미동맹을 동반자관계 용어를 사용하며 규정한 사례도 있는데, 2006년 1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대화’가 이에 해당함<sup>7)</sup>
- 당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동맹 동반자관계(Allied Partnership)’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기존 양자적 성격을 넘어서서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당면한 도전을 공동으로 극복할 것을 지향하는 것이었음
-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 테러와의 전쟁 협력,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초국가적 전염병 퇴치,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 노력, 다자 차원의 평화유지 활동과 위기 대응 및 재해관리에 관한 협력 등으로 최근의 ‘포괄적 전략동맹’ 개념과 유사한 것이었음
- 따라서 한미관계의 경우에도 동맹과 동반자관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특히 중국이 한미동맹을 냉전 동맹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동맹과 외교적 동반자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함

**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혹은 안보협력  
관계에서 비롯됨...  
‘동맹 동반자관계  
(Allied Partner-  
ship)’ 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기존 양자적 성격을  
넘어서서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당면한  
도전을 공동으로  
극복할 것을 지향함**

2013년 5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조정해 나갈 것

## 2. 21세기 한미동맹의 발전과 동반자관계의 형성

- 2013년의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한미관계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5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의 구상을 밝혔는데, 이 선언에서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 성격을 잘 보여줌<sup>9)</sup>
  - 이 선언에서 한미동맹은 안보협력을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하였음
  - 특히 한국과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공동가치에 기초하여 공동번영하고 있는 ‘동반자관계’라고 강조하였음
  -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며, 미국은 확장억지와 재래식 및 핵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하여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는데, 이는 군사적 측면으로서 동맹의 본질을 강조한 것임
  - 이러한 군사적 동맹의 관점에서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및 연합방위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하기도 함
  -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고, 비핵화 및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안보협력의 관점에서 동맹의 기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른 한편, 한미는 FTA를 통해 양국의 파트너십이 긍정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한미 FTA가 양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기존의 동맹 개념을 넘어서는 것임
  -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지역적, 범세계적 안보 및 경제발전과 연계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 협력, 테러리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 안전, 비확산, 사이버 안보, 해적퇴치 등에서 협력을 증진할 것을 다짐하였는데, 이는 동반자관계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임

- 동맹과 동반자관계의 혼재
  - 2013년의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동맹 성격과 동반자관계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에 특정된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이 범위 면에서 동아시아, 글로벌로 확대되고, 이슈 면에서도 군사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외교, 경제, 신항안보 이슈들로 확대되어 전술한 군사 혹은 안보협력의 동맹개념을 넘어서는 것임
  - 이는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의 용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동맹 개념과 동반자관계 개념의 혼재는 2014년과 2015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나 군사적 논의기구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sup>9)</sup>

### 3.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의 전개

- 미중관계의 변화와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
  - 최근 중국의 부상과정에서 미중이 경쟁하면서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해 상당히 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이나 ‘재균형(Rebalancing)’ 정책 선언을 통해 동아시아 중시전략을 보여주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차원의 ‘축소(retrenchment)’ 전략을 동아시아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됨<sup>10)</sup>
  -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동아시아에 대한 ‘관여(engagement)’를 확대하면서도, 그 부담은 한국과 일본에 전가(buck-passing)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임
  - 냉전의 종식 이후 1990년대 중반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일동맹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던 것처럼, 한미동맹 역시 미국의 글로벌 및 동아시아 전략 변화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한 모습임
  -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으로 동맹의 변환을 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북핵 문제와 함께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음
  - 한미동맹은 최근 한국의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는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는 미일동맹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임
  - 한미동맹의 글로벌화도 중요하겠지만, 미중 경쟁시대라는 동아시아의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 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으로 동맹의 변환을 꾀하고 있는데...**

**‘포괄적 전략동맹’은  
글로벌 동맹 및  
가치동맹으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표방**

-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체성 모색이 필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과 함께 동반자관계로서의 한미관계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모습은 미중관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미관계의 다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포괄적 전략동맹’의 딜레마: 한반도 냉전기 NATO형 탈냉전 동맹의 딜레마
-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노력은 동맹의 정체성 및 목적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임
  - 하지만, 한미동맹이 현재 지향하고 있는 발전방향은 탈냉전기 NATO가 추구했던 변화의 모습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이러한 방향이 적절한 것인지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임
  - NATO는 1990년대 초반 유럽에서의 냉전이 종식되고 주적이었던 소련이 붕괴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유럽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 변화를 꾀했음<sup>11)</sup>
  - 하지만, 북한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한반도 냉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경쟁과 긴장의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NATO형 탈냉전 동맹처럼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음
  - 한미동맹이 현시점에서 지향하고 있는 ‘포괄적 전략동맹’은 글로벌 동맹 및 가치동맹으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됨
  - 또한, 한미동맹은 여전히 대북 억지력을 기본적 임무로 삼고 있으므로 동맹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지향하는 것은 아님
  - 하지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의 모습을 지나치게 지향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글로벌 동맹, 가치동맹의 모습은 한미 동반자관계의 개념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 전략으로서의 한미 동반자관계
-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이 동아시아에 관여하면서도 일정 부분 부담 전가의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하지만, 한미관계 전반을 동맹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자칫 한국 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리더십 대 글로벌 기여 혹은 책임감 사이에서 딜레마를 느낄 수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급작스러운 글로벌화는 비용부담, 책임성 등의 측면에서 한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동맹 차원의 한미관계 글로벌화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와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음
- 한국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 특정된 것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에서는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미일동맹은 주적인 소련의 해체와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한미동맹과 차이가 있음
-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그 임무와 목적이 다르므로 중국의 부상 등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는 미일동맹이 우선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모습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음
- 미국은 동아시아 중시정책 아래에서도 축소전략은 지속시킬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전략을 함께 할 동맹 파트너를 필요로 하며 이를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려는 모습을 보임
-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일 안보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인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구상하는 동아시아 전략과 한국이 고민하는 동아시아 전략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미국은 한미동맹을 한국방위의 한국화 및 동맹의 글로벌화로 대응하고, 동북아전략은 미일동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므로, 한국 역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전략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북아전략 모색을 통한 정체성 재조정을 고민해야 할 것임
-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동북아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 한미관계의 속성을 고려할 때 동맹의 목적은 한반도 방어에 특정하고 한미관계는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에 따라 동반자적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동북아전략을  
마련해야...**

**‘포괄적 전략동맹’의  
글로벌화 및  
가치 지향은  
남북한 냉전 해소와  
한반도 통일시대  
한미동맹의  
모습이라고 평가**

#### 4.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의 정책 방향

- 한반도 통일과 한미동맹
  - 한미동맹의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은 한반도 냉전 해소가 분명해지고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 가야 할 것임
  - 사실 ‘포괄적 전략동맹’의 글로벌화 및 가치 지향은 남북한 냉전 해소와 한반도 통일시대 한미동맹의 모습이라고 평가될 수 있음
  - 통일과정에서는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냉전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군사적 동맹 정체성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 주요 임무는 대북 억지력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정화 역할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임
  - 한미동맹은 통일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대북 억지력,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의 역할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는 탈냉전기 NATO형 동맹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한반도 통일은 한미동맹의 목적 달성이 아니라, 미일동맹이나 NATO 처럼 새로운 목적과 정체성을 수립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미일동맹의 경우 동북아 냉전 종식 후인 1996년 ‘미일 신 안보공동선언’에 합의하였고, NATO의 경우에도 냉전 종식의 과정인 1989년 이후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였음
  -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한미동맹의 이념적 가치공유는 통일과정에서 더욱 중요할 것임
- 미중 경쟁관계와 한미 동반자관계의 방향
  -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동맹과 한미 동반자관계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한반도 군사적 측면에서의 동맹의 역할과, 동아시아 글로벌 외교 측면에서의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함
  - 대북 억지력의 군사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한미동맹 개념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 동아시아의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한미동맹이 미중관계의 변화과정에서 동맹의 역할과 동반자관계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글로벌 수준에서는 한미관계를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한미관계의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중관계의 변화를,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 문제의 방향을 고려하여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임

- 미중관계가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글로벌 수준에서 한미관계의 글로벌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중관계가 불안정해지고 북한의 안보위협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는 한미관계는 군사적 동맹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게 기대될 것임
- 이러한 한미관계의 접근 과정에서 미국의 글로벌 및 동아시아 전략의 관점에서 한반도 전략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북한 문제보다 미중관계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미동맹과 한미 동반자관계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한국은 한국 주도 및 한반도 중심성을 강조하면서도 글로벌 및 동북아의 시각에서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고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한미관계가 군사적 동맹의 성격과 비군사적 동반자관계의 성격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임

**미국은  
북한 문제보다  
미중관계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미동맹과  
한미 동반자관계의  
방향을 모색해야...**

주석

- 1)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4.
- 2)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1, 12, 14.
- 3) 이무성, “파트너십(동반자관계) 외교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 『JPI정책포럼』 No.2016-01, p.3.
- 4) 김홍규, “중국의 동반자외교 小考: 개념, 전개 및 함의에 대한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제43권 2호(2009).
- 5)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론, 역사, 쟁점』(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
- 6) 이무성, “파트너십(동반자관계) 외교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 『JPI정책포럼』 No.2016-01, pp.2-3.
- 7)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Statement on the launch of the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2006년 1월 19일.
- 8) 대한민국 외교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2013년 5월 7일.
- 9) 대한민국 국방부,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15년 11월 2일.
- 10) Paul K. Macdonald and Joseph M. Parent. “Graceful Decline? The Surprising Success of Great Power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35, No.4 (2011); Christopher. Layne, “This Time It’s Real: The End of Unipolarity and the Pax American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56, No.1(2012).
- 11) 이수형(2012).

## 참고문헌

- 김흥규. “중국의 동반자외교 小考: 개념, 전개 및 함의에 대한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제43권 2호(2009).
- 대한민국 국방부.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15년 11월 2일.
- 대한민국 외교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2013년 5월 7일.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Statement on the launch of the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2006년 1월 19일.
- 이무성. “파트너십(동반자관계) 외교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 『JPI정책포럼』 No.2016-01.
-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론, 역사, 쟁점』.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
- Layne, Christopher. “This Time It’s Real: The End of Unipolarity and the Pax American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56, No.1(2012).
- Macdonald, Paul K. and Joseph M. Parent. “Graceful Decline? The Surprising Success of Great Power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35, No.4(2011).
- Snyder, Glenn H.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 저자 약력

## ■ 황지환

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에서 “세력열세국의 위험수용과 외교정책: 북한의 핵정책”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 현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과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음.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관계이론, 안보연구, 북한외교정책, 한반도 통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Revisiting the Functionalist Approach to Korean Unification: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2015), “The Paradox of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2014), “The Two Koreas after U.S. Unipolarity”(2013), “Face-Saving, Reference Point and North Korea’s Strategic Assessments”(2009) 외 다수가 있음.

기획 및 감수: 도중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김현주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